

기업하기 좋은 순창 만든다

최영일 군수, 기업인 20여명과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나서

최영일 순창군수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16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인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기업 하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 내 기업 활동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여 개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최 군수는 기업인들에게 민선 8기 출범 후 2년간 건의된 46건의 기업 건의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과 처리결과를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투자 지원사업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 홍보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기업인들의 최우선 애로사항으로 꼽혔던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최영일 순창군수가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16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인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기업 하기 좋은 순창 만들기에 나섰다.

지원 방안에 대해 군이 약 70억원을 투입해 기업 연계 청년 근로자 기숙사를 건축할 계획을 밝혀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기업인들은 규제 완화,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요구했으며, 군 관계자들은 이를 꼼꼼히 기록하는 동시에 즉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우리 지역 기업인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요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기업인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군에는 현재 141개의 기업체가 운영 중으로 4개의 중견기업(대상, 사조산업, 한국씨엔티, 시아스)을 포함해 137개 중소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농기센터, 농업치유반 현장견학

경남 진주시 진양호힐링센터서 체험 즐겨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16일, 명품농업대학 농업치유반 35명과 경남 진주시의 진양호힐링센터로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이번 현장 교육에서는 진주의 농산 물인 감태주먹밥, 에그햄버거 만들기 체험과 진주에서 재배되는 텃밭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를 이용한 बे지김

밥& 텃밭채소샐러드 등을 시음해 보았다.

체험관에서 진행한 बे지김밥 만들기 체험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체험하면서 교육생들은 즐거워했고, 만들어지는 원리와 효능, 보관 방법까지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김연주 소장은 "교육생들이 원하는



곳으로 현장 견학을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온 거 같아 매우 기쁘다"며 "지역의 음식으로 체험을 진행해 소독을 청출해나가는 점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순창군이 재난 대처 능력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이 입증됐다.

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2023년 실적)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안전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기후 변화에 따라 폭우와 폭설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상황이 수시로 발생해 그 어느 때보다 지자체의 재난 대처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순창군이 이번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됨에 따라 재난대비 대처 우수 지자체로 다시 한번 행정력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순창군은 장관 표창은 물론 특별교부세 8,800만원과 포상금 4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338개 재난안전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단계별 필수업무, 재난 유형별 관리 활동 등 42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

해 이루어졌다.

특히, 군은 △재난관리 조직·인력 운영의 적절성 △재난 대응 실무반의 편성, 역할·분장, 숙지도 △실제 재난 및 사고 사례 대응 등의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는 그동안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최영일 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재난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난 예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반려동물 동반 관광 메카 성큼

심민 임실군수, 오수의견관광지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임실군이 반려동물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오수의견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세계명경테마랜드 조성 등 주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심민 군수는 지난 15일 세계명경테마랜드 등 오수의견관광지의 주요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다.

현재 군은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 동반 관광의 남부권 메카로 조성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총 2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세계명경테마랜드, 반려동물 국민여가관광지 등 반려동물을 테마로 한 관광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세계명경테마랜드 조성사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체험하며 전시, 쇼핑, 숙박 등을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복합관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추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시됐다.

더불어, 오수의견관광지 내 위치한 오수개 연구소를 오수 개 추모공원 인



근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관련 부지 현장을 지역 관계자와 둘러보며 이전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오수개 연구소는 오수개의 품성 고정을 위한 육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일 가족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오수개 품종을 등재했다.

군은 오수개를 전국적인 반려동물산업의 랜드마크로 변모시킬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오수 의견의 역사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임실군을 전국적인 반려동물산업의 1번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현장 방문에서 심민 군수는 "오수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 동반 관광의 성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현안들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반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나서

순창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2,414건에 대해 7억 8,100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는 7월에 한 번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CD/ATM)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소방서, 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공개 모집

임실소방서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 신규 의용소방대장 및 부대장 후보자를 모집한다.

의용소방대장은 임실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대상으로 추천서를 받아 후보자를 선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해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의용소방대장은 운암남성의용소방대 대장·부대장 총 3명이며, 각 대 부대장이 후보자 등록 신청 시 부대장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임실소방서 의용소방대 소속 의용소방대원으로서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는 대원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여 임실의 의용소방대와 지역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5일까지 임실소방서에 방문하여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동규 서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의용소방대 발전과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 등에 관심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주생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건강관리 나서

남원시 주생면은 지난 15일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있는 현장을 찾아 전문 통역사와 방문해 폭염에 대비하는 온열질환 등 건강관리에 나섰다.

주생면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8농가에서 15명이 복숭아 수확, 시설하우스 등에서 근로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는 문화가 다른

낯선 한국 생활의 이해와 아외작업이 많은 농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 주와 협의하여 폭염을 피해 근로 시간 조정,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그늘진 휴식 공간 마련 등 외국인 계절 근로자 건강관리와 온열 질환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5주년 청소년 어울림마당

임실군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지역 청소년 및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5주년을 기념하는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을 사랑했던 시간, 다섯 번째'란 주제로 개관 5주년을 축하하고, 청소년문화 체험활동을 함께하는 시간으로 총 3부로 진행됐다.

지난 6일 진행된 1부에서는 '타임캡슐 속으로'라는 미래 나의 모습으로 지난 3년 전 나의 이야기 함께하기, 미래 나의 목표 세우기 등 나의 발전과 미래 나의 모습에 대한 준비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2부에서는 청소년 밴드동아리가 준비한 어울림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신나는 놀이마당, 공예, 베이킹, 동아리 청소년들이 준비한 포대 친구들과 함께하는 체험 공간, 즉석 노래자랑 이벤트 등 여러 콘텐츠들이 운영됐다.

12일 진행된 3부 지역나눔활동은 청소년참여기구(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참여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앞에서 이동식 카페 운영, 쿠키 나눔, 홍보물품 제공 등 청소년이 직접 준비한 나눔으로 5주년을 축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